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조경완



최남선의 변절(變節)을 전해들은 한용운이 살아있는 최남선을 장사 치렀다는 에피소드를 국사선생님으로부터 들 때, 우리는 변절자에 대한 증오와 연민 그리고 신념을 지닌 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품는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를 버린 신숙주가 쉬 변하는 녹두나물에 빗대어 조선팔백의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변절에 대한 우리의 무한한 경계를 부른다. 지식인에게 변절은 곧 사형선고다.

내년 말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주창자였던 안병직 교수다. 유신말기의 부패와 독재를 목격하며 “한국의 자본주의는 곧 파괴한다”고 예언하던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30년이 지난 지금 우파경제학자로 ‘변절’해 뉴라이트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른바 ‘386’투사들의 사상적 지주였던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시장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의 경이(驚異)였다.

변절이란 그러나 반대쪽에서 보면 전향(轉向)이다. 미전향 장기수도 북에서 볼 때 40년 옥살이를 이겨내며 변절하지 않은 마르크스다. 그들이 준비서약을 쓰고 풀려날 때 우리가 그들을 ‘변절 장기수’라 부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변절’엔 경멸의 의미가, ‘전향’엔 옹호의 의미가 덧붙여져 조선팔백의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변절에 대한 우리의 무한한 경계를 부른다. 지식인에게 변절은 곧 사형선고다.

그의 사상체계를 흔들어버린 사람은 아 이러니킬하게도 전두환이다. 아무 경제지식도 없는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이 된 후 한국경제가 육일승천하는 걸 보고 그는 쇼크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붕괴하기는 커녕 단군 이래 최고의 성장을 이루는 경례를 보고 그는 자신의 이론을 송두리째 호소했다. 오는 28일엔 정부대표단과 함께 뉴욕 월가와 샌프란시스코 IT기업들을 찾아가 한국투자유치활동을 벌인다. 이쯤 되면 ‘변절’ 정도가 아니라 재탄생이라고 불러야 맞다.

보수와 진보의 일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최근 의미 있는 변절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고의 주인공은 역시 70

버린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절자가 있다. 이름은 한국노총위원장이다. 지인들은 그가 금융노련 위원장이던 시절 론스타나 카탈라일이나 뉴브릿지캐피탈이니 하는 거대 자본들에 대해 “세계를 떠돌며 먹잇감을 노리는 약육강식 자본주의시장의 약탈자들”이라고 거품을 몰며 비난하던 걸 기억한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지난주 주한 EU상공회의소 주최 강연회에 연사로 나가 안정된 한국 노동시장을 홍보하며 유럽자본의 투자를

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각각 자신이 속한 세력으로부터 모두 변절자라고 욕을 먹는 중이다. 오 당선자가 시장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에 최 열씨를 발탁한 것은 확실히 파격이었다. 필수 우파 진영에선 최열 대표를 ‘환경운동원 빙자한 좌파 거두’로 보고 있었고 좌파 진영에선 오세훈 당선자를 ‘개혁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좌파운동가의 간판급 스타인 최씨가 한나라당이 꾸린 제도권 속으로 들어간 건 그쪽 진영에서 볼 때 웅서 못할 변절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한다. “환경문제는 이데올로기가 중요치 않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나,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최열 대표의 말대로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특정 짓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변절자라고 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도 광속(光速)으로 진화하는 21세기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공황시절, 경제정책에 혼수를 두며 세계경제를 위락하려 하던 케인즈의 일화가 생각난다. 누군가 그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보가 변하면 결론을 수정한답니다. 귀하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논설위원> kycho@kwangju.co.kr

변절자를 위한 변명

호소했다. 오는 28일엔 정부대표단과 함께 뉴욕 월가와 샌프란시스코 IT기업들을 찾아가 한국투자유치활동을 벌인다. 이쯤 되면 ‘변절’ 정도가 아니라 재탄생이라고 불러야 맞다.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노동시장 협의과정에서 그가 정부측 협상안에도 동의하다가 강성노동계로부터 난도당하는 걸 목격했다. 그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보다는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했다”고 말할 때는 이미 ‘바꾼 신념’에 대한 신념이 서 있었는지 모르

시설

균형발전 싹도 트기전 수도권 대통합이라니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수도권 대통합론’이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간의 전면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최근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동의 정책개발 및 실천을 위해 수도권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통합론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수도권 과밀집증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허구”라며 “당장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만 풀어도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데다 30대 대기업 본사의 80%, 금융거래와 조세 수입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에 기업 투자

나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교통체증, 환경과피를 불러왔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시점에서 수도권의 당면 과제는 과밀 해소와 개발이 아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환경과 교통, 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의 무리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최근 들어 기업 유치에 활기를 띠고 있는 광주지역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생산도시로의 탈바꿈은 기대하기 힘들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근시안적인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특정 정권의 구호나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다.

새 국회의장의 ‘개헌준비론’ 시기 적절치 않다

임정재 신임 국회의장이 19일 취임 인사말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번지고 있다. 개헌론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돼 왔지만 하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제 일심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모로 보아 임 의장의 ‘개헌 준비론’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김원기 전의장도 2007년 이 개헌 적기라고 말했고 여야 각 정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국회의장이 새로운 거대정점을 제기할 국회가 아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분노한 민심을 때방들어 각종 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처리해야 하는 실무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개헌논의는 지금이론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여부, 총선과 대선의 동시 실시 등 제한적 주제에 그치고 있지만 일단의 논의가 시작되면 화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폭발할 개연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前文)에 손을 대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고 해묵은 내각책임제 논쟁도 이번기회에 본격화할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나라당로서는 모든 논의를 음모론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은 또 한바탕의 싸움판으로 변할지 모른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개헌을 둘러싼 논쟁 자체보다는 이 논쟁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그동안의 실정(失政)이 제도상의 잘못 때문으로 호도되고 민생은 또다시 핑기가 없이 피폐해질 가능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후 여권발 개헌정국’설도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 한다. 국민은 개헌논의를 빙자한 권력놀음에 속을만큼 어리석지 않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지난 5·31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망한 여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말이 있고 중앙정치와 무관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너무나 일방적인 투표행위로 실망스럽다는 평이 있다. 이번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후퇴시켰다. 후보자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정치적 목표와 공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며 유권자들은 철저히 이를 검증해서 신중한 투표를 통해 지방정치인을 선출해야 하는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훌륭한 지도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히 구분된다. 한일합방의 치욕과 6·25전쟁 그리고 최근의 IMF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이토록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동경 밑에 마제다시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사회당 장출신의 시장이 오랜기간 재임하면서 동경의 배드타운을 가장 복지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시장과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을 잘 뽑아놓으면,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치

정치수준 떨어뜨리는 물지마 투표

것이 올바른 선거 풍토인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중앙 정치의 바람만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당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감정만을 자극했다. 또 유권자도 후보자들의 신상과 공약을 인터넷이나 선거공보물 그리고 선거벽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언론사의 선정적인 기사나 비이성적인 감정표현으로 후보를 단순히 결정해버린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정치는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책임지는 가장 상위의 집단이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가나 민족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를 깔치면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5·31 지방선거와 같이 물지마 투표행위로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과 공약에 상관없이 줄을 잘 서고 운이 좋으면 누구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아무도 정치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비교하고 검증하는 유권자의 의식이 바로서야 정치가 어려워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있는 후보자들만이 정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지마 투표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사)문화사랑시민연대 대표> 2005년 12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부모의 무책임한 이혼... 아이들 상처 받아서야

이혼한 뒤 4년째 혼자 살고 있는 언니가 몇 일 전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뜬금없이 “엄마, 고맙습니다”라며 자신에게 안기더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봤더니, TV에서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한 어린이가 심하게 화대받는 내용의 뉴스를 봤다는 것이다. 이 언니는 이혼한 뒤 아이를 한 번도 때어 놓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혼을 결정했을 때도 첫번째 조건은 아이 양육이었다. 위자료료 더 요구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고, 왜 말하려고 하느냐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

부엌던 언니가 받은 위자료는 3천만원이 전부였다. 언니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 서로 아이를 맡지 않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고,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는 좋을 땐 한없이 예뻐하고, 싫증나면 버려도 되는 장난감같은 존재가 아니다.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던 전전주

기 고

박철홍



최근 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깨끗한 물이 귀해졌을 뿐 아니라, 물의 새로운 가치들이 발견되면서 물의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하나는 식음료로서의 가치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물을 마셔왔지만, 오늘날 물은 먹는 음식이 되었다. 이제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챙겨서 '먹는다. 마치 건강식을 먹듯,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때 적절한 양의 물을 '먹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0년전부터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진 당뇨병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물을 대체 치료수단으로

사용로만 보지 않고, 다가가서 만지고 물장구치며 가지고 놀 수 있는 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희개념이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력(정치성)으로서의 가치이다. 바닷물이나 빙하 등을 제외하고 사람이 쓸 수 있는 물 전부를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평하게 분배하면 대략 1인당 연간 8천여억 리터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물 풍요국가의 기준, 즉 1인당 연 1천700여 리터의 물 사용량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러나 물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물의 새로운 가치에 대하여

사용돼 왔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또 물이 음식이 되면서, 물은 보다 다양해졌다. 사람들은 물의 구조를 분석하고, 물의 맛을 구분하여 보다 맛있고 몸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 놀이로서의 가치. 현대인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보다 윤택하고 즐거운 생활을 찾기 시작하면서 물의 유희적인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에 넓은 바다위를 빠르게 가르며 수상스키, 경이로운 바다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낵스쿠버, 그리고 그 외에도 물을 이용한 다양한 레저스포츠들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건축이나 조경설계 등 여러 설계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중에 하나가 바로 '친수(親水)'다. 즉 물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관찰대

분포에 있다. 따라서 물이 풍부한 지역과 모자라는 지역 사이에 불평등한 물 분배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분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물부족 문제는 자연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수자원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변화로 인해 사용 가능한 물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은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쳐서 위에 지적한 가치들의 의미가 없어진다. 보다 적극적인 수자원개발을 통해 우리의 물주권을 확보하고, 물살품 여러 설계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중에 하나가 바로 '친수(親水)'다. 즉 물을 바라보고 감상하는 관찰대

성범죄자, 전문적 치료와 함께 피해자 지원방법 모색해야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자 팔찌 등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도 무려 83%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없이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용시키는 것보다 전문적 치료 인력이 전담, 치료

하는 교도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출소 후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평생 씌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장희상·무안군 일로읍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20일새 200포인트 이상 급락. 하루 42.79포인트 급등...' 요즘 변동성이 심한 증시를 대변하는 지표들이다.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바닥 모르게 추락, 투자자들의 가슴을 슬어내리게 했다. 한 때 지수 1천464.7까지 올라 전망을 밝게 했던 증시는 미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곤두박질쳤다.

미국 FRB(금융준비제도위원회)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운을 때면서부터다. 객장은 공포 열어놓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을 치는 상황이 돼버렸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큰 영감을 미칠 요인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아랑곳없이 주가는 1천200선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졌다.

버냉키 증시



“버냉키의 입”은 우리 증시 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병탄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온탕에 몰아넣기도 한다. 한 때의 증시를 움직이는 파워 10인 설문조사에서 버냉키가 1위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 월드캡 열기가 거세지만 투자자들만은 버냉키의 입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버냉키어, 골치아픈 인플레이에서 벗어나 제발 월드캡에 폭 좀 빠져주소서” 모든 투자자들의 은근한 소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박만을 쫓는 무모한 투자는 자제해야 할 일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버냉키의 입”은 우리 증시 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병탄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온탕에 몰아넣기도 한다. 한 때의 증시를 움직이는 파워 10인 설문조사에서 버냉키가 1위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 월드캡 열기가 거세지만 투자자들만은 버냉키의 입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버냉키어, 골치아픈 인플레이에서 벗어나 제발 월드캡에 폭 좀 빠져주소서” 모든 투자자들의 은근한 소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박만을 쫓는 무모한 투자는 자제해야 할 일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등록번호 광주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 (지사·지국·독독신참·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총 부 2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 F A X 2200-521 > < F A X 2200-551 >. 경 처 부 2200-616, 여론체재부 2200-628,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경 체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63, < F A X 2200-536 > 서울지서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 F A X 222-427 > 조 사 부 2200-570. < F A X 222-427 >.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